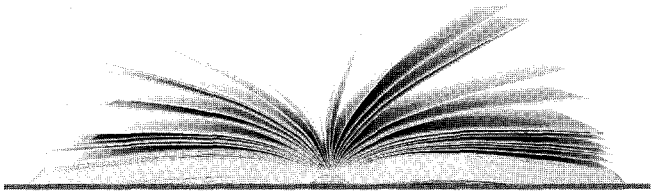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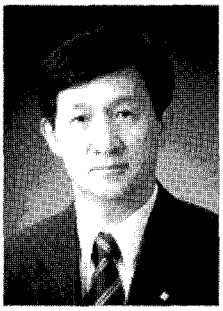
계명 소리(鷄鳴聲)





이 상 희 전무
이화팜텍(주)

어둠을 물리치며 새벽을 깨우는 상서로운 우리의 소리가 있다. 춥고 긴 겨울 밤이나 외롭고 힘들어 신열에 지친 밤을 지내본 사람에겐 한층 반가운 소리인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 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 소리에 따라 추억 한 두 가지는 있을 것이다.

필자가 사는 김포 평야 들녘에는 지금도 이 집 저 집에서 닭을 많이 키우고 있다. 덕분에 아침마다 음악과도 같은 계명성 소리를 자명종 삼아 일어난다. 아파트에 살 동안에는 거실에 걸린 뻐꾸기 시계소리에 따라 기상했는데 김포 닭 소리는 참 편하다. 베터리도 없이, 따로 예약도 없이 늘 씩씩하게 잘도 소리쳐 나를 깨워 준다.

해 뜨기 48분 전, 여명이 시작되면 작은 속삭임들로 귓전에 다가와 점점 크게 소리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자는 참 감사한 아침 인사들이다.

필자의 집은 늦가을과 초봄이면 철새 도래지인 한강의 최북단 전류리 포구와 가까운 지라 철새들이 수없이 무리지어 오고 간다.

수확한 논 위에 수백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와서 일제히 논가를 뒤지며 열심히 먹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새들을 보며 아침 안개와 저녁 노을 속에 그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종종 두루미도 나타나고 이름 모를 각종 오리들이 한강 물위로 날아 내리며 물고기들을 찾는 모습도 우아하다. 평사낙안(平射落雁)이란 구절이 생각난다. 평평한 모래 사장 위에 기러기가 내려 앉는다는 고사성어인데 그 점잖고 모두 침착하게 날개를 접으며 하강하는 모습들이 참 평안해 보인다.

무당파와 소림사의 권법과 태극권에서도 평사낙안이 등장하듯 천천히 날아 오르고 자세를 잡는 것은 우아한 일인가 보다.

엉덩이에 통통하게 살이 붙어 엉뚱한 자태가 될 무렵이면 떠나는 오리들

이지만 V자를 그리며 앞자리의 새가 날개짓으로 형성한 상승 기류를 서로 이용해 날면서 차례로 앞자리를 이어 받아 가면서 질서를 지켜 힘을 나누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비축해야 떠나는 새들의 지혜가 느껴진다.

먹이를 먹으러 갈 때 내는 소리와 무언가에 놀라 날아 오를 때의 소리가 다른 것처럼 들리는데 딱한 것은 종종 캄캄한 밤 중에도 낮게 머리 위로 나는 새들을 보는 일이다. 어두워 별빛 정도만 있는데도 잘 날아가 숲으로 가는 걸 보면 어둡다고 모두 잠만 자는 건 아닌가 보다.

보통은 무리지어 날아다니지만 작게는 가족 단위로도 잘 다닌다. 그런 경우 작은 아이 새들은 허겁지겁 떠들면서 쫓아가는 것 같다. 연신 소리치며 나는 모습들이 마치 "천천히 가요, 같이 가요!" 하며 늦게 따라가는 어린 새들의 아우성처럼 요란하다.

날개가 큰 새는 아주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처럼 유유히 날아가고 날개가 작은 종류들은 낮게 뒤뚱뒤뚱 날아가는 것 같다.

철새들도 별자리와 지구 자기장과 태양광선을 종합적으로 뇌의 전엽에서 인식하여 나침반처럼 활용해 난다고 하는데 우리 집 주위 논 밭에 수없이 많던 새들이 없는 계절이면 한동안 심심하여 수시로 하늘을 올려다 보곤 한다.

서로 인사도 없이 아는 체도 안하고 내 집 앞 들녘을 놀이터와 집으로 여겨 살던 그들이 오갈 때마다 반가움과 아쉬움으로 교차하는 마음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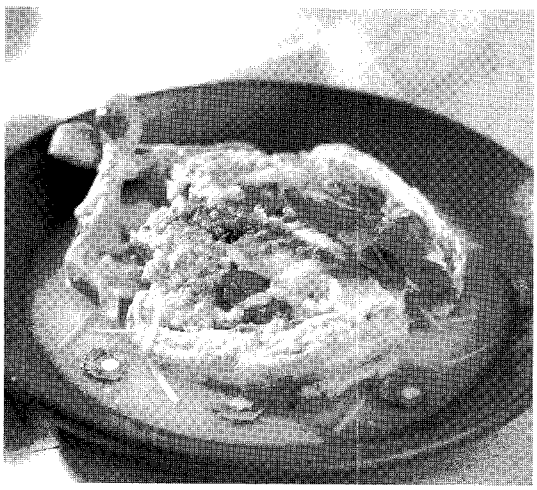
내 무릎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 둘이 대학원 진학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보름 전에 서울로 철새처럼 떠나갔다.

언제 부모 곁에 머물렀나 싶게 아이 둘이 떠나 간 자리는 철새가 떠난 들녘보다 훨씬 더 필자에겐 허전한데 부모 곁을 떠나 가 머잖아 결혼하여 자기들 보금자리로 갈 딸과 아들은 마냥 즐겁기만 한가 보다.

아침에 이웃집 수탉이 잠을 깨운다고 투덜대던 아이들.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 소음 속에 깨고 일어나는 머리가 맑을 지 필자는 걱정이 된다. 전화벨처럼 자명종을 머리 맡에 두고 자는 녀석들을 보며 내 세대와는 다른 별종 신세대임을 깨닫는다.

문득 얼마 전에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인기리에 상영했던 영화 〈워낭 소리〉가 생각났다. 남자 주인공이 30년 후의 내 모습일 거라는 평론가의 말을 믿고 보았는데 보다가 웃었다. 먼 후일의 내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를 영화 여기저기서 발견했다. 소를 먹이며 소를 돌보며 살아 오듯, 그 동안 사료업계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여 외길로 27년간 종사하다가 지금은 사료업계에 첨가제를 공급하는 자리에 있으니 나는 사료와 함께 살아 왔고 사료가 있어서 살아 왔나 보다. 그러니 내게는 사료가 영화 속의 소와 무엇이 다르랴.



4월 9일은 백색육인 닭고기를 많이 먹자는 토종 White day, 닭고기 먹는 날이다. 그래서 새해 첫날로부터 99일째인 4월 9일과 9월 9일은 우리 양계인에게는 상서로운 날이다.

지난해에는 소 울음 소리가 우리 곁에서 데모와 논쟁과 지루한 정쟁으로 힘든 한 해였다. 듬직하고 우리 민족을 닮은 소 울음 소리를 데모와 당리당략으로 몰고 간 면이 많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소만도 못하단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 때 필자의 아들은 그 데모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의경으로 방패역을 맡으며 수 많은 날을 지샜다. 아깝고 안타까운 날들이었다.

이제 워낭 소리는 다 잊고 상대적으로 값도 싸고 영양가 높은 다양한 조리법의 계명성 소리로 온 나라 안의 가정을 채우고 음식점과 군부대와 학교를 채울 때이다. 대통령이 관람해서 유명해진 영화라는 평이 있지만 여하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우리들의 가까운 먹거리며 문화인 닭 소리가 자주 많이 들리길 기원한다.

외국 영화처럼 닭을 소재로 한 영화나 만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처음 접하는 동화 읽기에 국적 불명의 외국 소재보다 우리나라 닭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작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또,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각 요로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즐거운 꼬꼬댁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제일 빨리 달리는 동물은 무엇인가? 그건 후다닭(닥)이다. 헐레벌딱(닥)이란 말도 있다. 가장 예쁜 색시는? 꼬꼬댁(곱고 고운을 빨리 말하면 꼬꼬가 된다)이라는데 믿거나 말거나다.

그러면 우리 계육산업이 미국의 개방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후다닥 소리나게 헐레벌떡 좋은 정책을 세워 주신다면 우리 모두는 꼬꼬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구구데이에는 만화가와 동화 작가들을 특별 초청해 닭소리가 꼬끼오! 꼬끼오! 크게 동화나 만화, 영화로 재탄생 되면 서로 좋을 일 아니겠는가?

계명성 동쪽에 밝아 새 나라 여명이 왔다. 노래처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늘 상서로운 계명성으로 밝아오길 기원한다.